

광주문예회관 30년만에 리모델링



개관 30주년을 맞은 광주문화예술회관이 올해 대극장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소극장, 주차장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하 회관)은 개관 30년만에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다고 밝혔다.

회관은 지난해 리모델링 설계를 마쳤으며, 국비 20억원, 시비 227억원 등 모두 247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대·소극장 무대장비 및 기계장비 교체, 주차장 정비 등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1월 중 노후장비, 석면 등 철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리모델링은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올해 공연장이 문을 닫으면서 계획된 대극장 공연들은 소극장을 비롯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스퀘어 문화관 등에서 열린다. 1991년 건립된 회관은 부지 8만6000여㎡에 전체면적 4만6000여㎡로 1985년 12월 착공해 1991년 준공했으며 사업비 480억원이 투입됐다.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

1722석(1만3704㎡) 규모의 대극장과 504석(4834㎡) 규모의 소극장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시민과 만나왔다. 하지만 최근 각종 시설물, 무대장비, 일반기계설비 등의 노후화에 따라 공연 및 관람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관은 공연장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건물 보수 공사를 위해 지난 수년간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규모가 워낙 커 지금껏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회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무대, 객석, 벽체, 천장, 공조 등 공연장 내부 시설을 전면 교체하고 주차장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대기계와 조명, 영상, 음향시설의 개선을 통해 공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대극장 내부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무대장비 교체 및 설치를 진행한다. 대극장 공연장 내부 관람객 의자와 바닥 카펫, 무대바닥, 벽 마감재를 교체할 예정이며, 대극장 내 음향컨트롤 박스를 새롭게 만들고, 로비에는 티켓박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소극장 내부시설과 공연장비 등을 교체하고, 주차장 정비에 나선다. 소극장 관람객 의자와 바닥카펫을 교체하고, 천장 와이어메쉬 철거, 조명 설치 등을 진행한다. 주차장의 경우 지하 1-4층의 바닥, 벽체, 기둥 등을 모두 새롭게 단장한다.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대극장의 경우 50석 내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음향 시설 등의 교체로 음악향의 기능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공연을 유치할 수 있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시립예술단체의 공연과 회관 기획공연 등의 라인업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 독일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 북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이 내한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회관은 이밖에도 광주 공연계의 숙원이었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건립을 위해 2022 국비신청사업에 지원을 한 상태이며, 결과는 오는 10월 중 결정된다. 대극장에서 내려가는 계단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낮은 쪽을 무대로, 높은 쪽을 객석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양승수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지원과장은 "이번 회관 리모델링을 통해 공연장이 현대화, 디지털화 되는 것이다"며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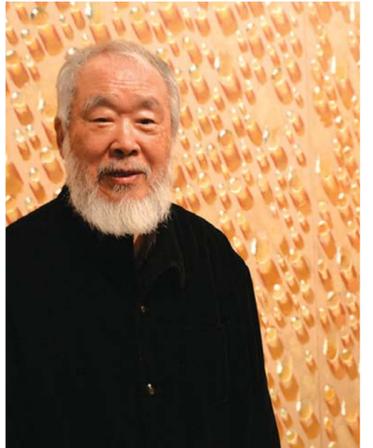
껏 공연시설 노후화로 인해 초대형 뮤지컬 등은 선보일 수 없었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더 나은 품질의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광역시 단위의 큰 도시임에도 클래식 전용홀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예산확보를 위해 첫 발을 댄으니 건립까지 차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247억 들여 내년까지 대·소극장, 주차장 정비 공사기간엔 ACC, 유·스퀘어 문화관 등 활용 힐러리 한·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 등 공연 계획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 건립도 추진 국비 신청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로비 전경.



2014년 광주시립미술관이 개최한 전시회에서 작품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김창열 화백.

‘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백 별세

‘물방울 화가’로 잘 알려진 한국 추상미술 거장 김창열 화백이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김 화백은 실재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영롱한 물방울을 그린 작품으로 대중적인 인기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한국 현대미술에 큰 획을 그었다.

1929년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열여섯 나이에 월남해 이태대가 운영하던 성북화화연 구소에서 그림을 배웠다. 김정고시로 서울대 미대에 입학했으며 6.25 전쟁이 벌어지면서 학업을 중단했다.

전쟁 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고인은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걸었다. 1957년 박서보, 하이두, 정창섭 등과 함께 현대미술가협회를 결성하고 한국의 급진적인 앵포르멜 미술운동을 이끌었다.

1960년대 들어서는 세계무대로 눈을 돌렸다. 1961년 파리 비엔날레, 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출품했다. 대학 은사였던 김환기의 주선으로 1965년부터 4년간 뉴욕에 머물며 록펠러재단 장학금으로 아트스튜던트트리그에서 판화를 전공했다. 백남준의 도움으로 1969년 제7회 아방가르드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이를 계기로 파리에 정착했다.

1970년 파리 근교 마구간을 작업실 겸 숙소로 쓰던 고인은 평생의 반려자가 된 현 부인 마르틴 질롱 씨를 만났다.

고인을 대표하는 작업인 ‘물방울 회화’는 1972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살롬 드 메’에서 처음 선보였다. 본격적으로 유럽 화단에 데뷔하면서 출품한 ‘밤의 행사’(Event of Night)를 시작으로 물방울 소재 작품 활동을 50년 가까이 이어왔다.

동양의 철학과 정신을 함축한 물방울 회화로 고인은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올랐다.

국립현대미술관, 드라가냥미술관, 사마모토젠조미술관, 주드폼미술관, 중국국가박물관, 국립대만미술관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60여 회 개인전을 개최했다.

그의 작품은 각종 아트페어나 경매에서도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2016년 3월 K옥션 홍콩경매에서 ‘물방울’(195×123cm, 1973년작)은 5억 1282만원에 낙찰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마르틴 질롱 씨와 아들 김시몽 고령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김오안 사진작가 등이 있다.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301호실에 마련됐다. /연합뉴스

사진으로 빛으로... 위로가 되는 풍경들 박인숙 개인전, 20일까지 예술인마을 갤러리

‘사진과 문인화가 어우러지다.’ 30여년간 카메라와 함께했던 박인숙 작가는 지난 2006년부터는 문인화도 배우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서 만난 풍경들은 그에게 큰 위안이었고, 먹과 붓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낸 풍경과 꽃 역시 언제나 삶의 위로가 됐다.

박인숙 작가가 사진과 문인화를 함께 선보이는 개인전을 오는 20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예술인마을 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전시에는 사진 작품 30여점과 문인화 20점 등 모두 50여점이 나왔다.

‘연꽃과 연밭 풍경’을 주제로 광주 원각사 대웅전 증축 초대 사진전을 열기도 했던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담은 흑백과 컬러 사진 작품을 선보인다. 밤하늘의 쏟아지는 별을 앵글에 담기도 하고, 진달래와 운무가

어우러진 봄날의 풍경,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다도해 모습 등을 포착했다.

문인화를 본격적으로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봉 박행보, 맥당 한상운 선생을 사사한 박 작가는 붓과 먹, 물이 만나 만들어내는 오묘한 조합으로 반추상의 자연 풍경을 그려왔다.

특히 사진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온 연꽃과 연밭 풍경은 문인화의 주된 소재가 됐다. 여백의 미와 담백한 수묵의 맛이 어우러진 작품들은 지친 삶에 위로가 된다.

박 작가는 한중일 사진 교류전, 한일 자연 사진가 교류전 등에 참여했으며 한국서도대전 초대작가 등을 역임했다. 한국사진가협회, 광주·전남 문인화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침바다 고깃배처럼 풍요로워져라’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